

## 제 목 : 은둔 청년, 좌절을 딛고 내일로

###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누군가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물음에 대한 답장을 쓰는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두에겐 인생이 던져주는 나름의 물음이 있고,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답을 시간으로 엮어 증명한다는 설명을 덧붙이면서요.

제 물음은 늘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평탄치 못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는, 항상 고생한 엄마에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어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추기듯, 네가 있어서 산다는 엄마의 말은 꼭 잘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모든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듯이, 취업이라는 문을 마주하며 제게도 실패하는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할 때마다 좋은 소식을 바라고 있을 엄마에게 ‘나 잘 하니까 금방 자리 잡을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도, 전화를 끊고 나면 찾아오는 두려움에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 두렵고,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영영 실패 계속되는 좌절로, 자신감마저 상실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타지에서 홀로 집으로, 방으로, 침대 안으로 간헐 들어갔습니다.

우울증으로 폐인처럼 지내던 중, 평소와 같이 일어나 바라본 창밖은 예쁜 석양이 내리고 있었고, 길 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러워 눈물이 펄펄 났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 너머로 끝을 가늠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빛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20대 그 찬란한 시절, 제게 가장 중요한 물음은 절망을 이겨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은둔 청년’이었으나, 간절히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굴레를 끊고 늪에서 건져낼 단 한번의 기회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고대하던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이른 봄, 새일센터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들에게 “S/W 전문개발자과정 “이라는 직업훈련을 안내한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개발자는 수요가 많고 각광받는 분야이지만 많은 공부와 필요해 전공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그러나 남들이 기피하는 개발자의 힘든 부분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새일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비 학원에서 1일 8시간, 6개월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새일센터의 교육은 1일 4시간, 5.5개월로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취업한 개발자 친구가 교육 과정이 너무 짧다고 우려를 표한 탓에 처음엔 교육을 들어가기 망설였으나, 새일센터에서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수업한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책에서 알려줄 수 없는 실무적인 지식을 강사님에게 배우고, 집에서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이론이나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모르는 부분을 다음 날 다시 여쭙보는 식으로 활용한다면 학습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취업 후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물으셨을 때 제 대답을 듣고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은 “와 그런 것도 했어요? 다 했네!” 였습니다. 새일센터를 고른 제 선택이 제 가장 큰 경쟁력이 된 셈입니다.

또한 새일센터 직업훈련을 시작할 때, 훈련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제 자질을 가장 먼저 평가받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훈련 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면접관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비전공자이고, 같이 훈련받는 많은 전공자 교육생들이 있어 가장 최고가 되지 못할지라도 가장 열심히 하는 교육생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를 위해 매일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나와 개발 환경을 미리 구축해두거나, 배울 내용을 먼저 파악해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강사님으로 계신 만큼 교육 기간에 많이 물어보아야 실무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무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 매일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고 강사님께 질문하며 실무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제가 준비해야 할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긴 시간이 제 성실함을 증명해준 덕인지 새일센터의 담당 선생님이 국가 공공기관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IT 기업의 이사님께서 교육생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가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해주셨습니다. 면접 예절과 태도 부분은 이전에 새일센터에서 화상면접을 본 것을 복기하였고, 질의응답은 강사님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저만의 대답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인지 다행히 이사님께서 ‘회사에서 만나보길 기대한다’고 말씀해주셨고, 며칠 있어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8월 17일 긴 취준과 좌절의 종지부를 찍고, 사회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경험도 없고 교육수료가 채 끝나지 않은 20대 후반

여자, 게다가 비전공자 신입이라는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IT 업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새일센터에서의 훈련과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노력했음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중간평가 동안 강사님이 내주신 문제의 해설을 듣고 있는데, 해설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 번 설명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마저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이것마저 나의 길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님이, 또 때로는 담당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그 자세를 계속 칭찬해줘야 한다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큰 우울증으로 매일 매일 약을 먹어야 했던 교육 기간 동안 계속 약은 잘 먹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챙겨준 건 저희 교육생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교육에 출석한 것은 모두 동료 교육생들 덕분입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취업에 성공하며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 자리에 있는 명패를 보며 몽클해진 마음을 계속 어루만진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만 해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침대 위에서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제가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고 부모님의 큰 걱정도 덜어드리게 됐습니다.

얼마 전 취업난인 현실을 비판하며 20대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유행한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저처럼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큰 우울에 간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의 문턱은 혼자서는 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새일센터를 통해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면 멀고 막연하게만 느껴진 취업의 길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